

배움과 성장을 위한 자세

작성일: 2020.02.24

작성자: 도원진

자신의 꿈을 이미 이론, 이루는 과정속에 있는 주인공들의 인터뷰내용을 읽으면서 느낀 키워드는 '주도성', '지속성', '행동력' 이다. 꿈을 성취하기 위해 고된 경험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얼마만큼의 노력과 땀을 들여야하는지 가늠할 수 도 없다. 그런 장기 마라톤을 하며 이들은 어떻게 이러한 특징을 갖출 수 있었던 걸까.

주도적인 활동

내가 잘하는 일을 더욱 잘하고, 나의 업을 더 가치있게 만들고 싶은 소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다른 누군가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높은 가치의 업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자신의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희소성을 갖으려면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행동해야 한다. 다른 이보다 한 페이지를 더보고, 한 시간을 더 공부하며 '내 것' 으로 간직해야한다. 한선태선수와 42서울 참가자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남들보다 한 번 더 공을 던지고 키보드를 치는 시간을 갖는다. 이들은 훈련하는 시간을 타인의도와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로 주도적으로 사용한다.

지속적인 훈련

자신의 업을 가치있게 만들기 위해 주도적으로 일을 벌리고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런 과정중에 누구에게나 시련은 오게 된다. 심지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게 된다. 하지만, 그런 순간을 이겨내게 되면 무서운 관성이 생겨버리게 된다.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관성의 성질이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행동을 갖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 자신의 행동에 가속도를 넣는 것, 그래서 더욱 더 중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아침일찍 교육장을 들어서고 밤늦 귀가하는 서울 42의 참가자들과 포기를 모르고 세계 바리스타 대회 출전을 7번지원하는 전주연님의 노력은 앞으로 있을 다른 기회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줬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선태선수처럼 프로의 길을 걸으면서도 야구에 대한 즐거움, 재미를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서 좋아하는 것도 타인이 이해할 수 없는 지속가능한 힘을 주기 때문이다.

멘토의 조언에 시너지를 얻는 힘 : 행동

멘토는 '내가 먼저 겪은 시행착오를 너는 겪지말고 더 나아가라' 마음으로 조언을 해준다. 선배가 먼저 배운 지식과 자신의 견해를 후배에게 전해줄 때, 반대로 배움을 구하는 이 즉, 후배의 자세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멘토링은 크게 '듣기-실천-재정의' 단계가 있다. 후배는 '신뢰'를 가지고 멘토의 조언을 듣고 수행할 줄 알아야한다. 비판적 관점을 갖고 자기만의 경험으로 재탄생 시키는 일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이 점을 유의하고 '듣기-실천'을 통해 멘토링 중 드러나지 않은 조언의 의미를 파악하는것이 좋겠다.

기사를 통해 어떻게 배우며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성장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그 꿈을 이루는 주체였고, 어떠한 방해요소에도 멈출 수 없는 '관성'을 끊임없이 굴려 큰 눈덩이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멘토가 가져야할 자세를 주제로한 글에서 반대로 더 알려주고 가르치고 싶은 멘티는 누구인가 생각해 봤을 때, 멘토가 한 말을 믿고 실천을 통해 눈으로 확인해보는 후배이다. 이러한 멘티의 자세는 위 두 가지 태도와 함께 완성된다.

내 의지로 이루고자 하는 꿈에 다가서는 일만큼 기쁜일도 없다. 극복가능한 인고의 시간을 보내며 내가 잘할 수 있는 SW개발을 더 잘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멘토의조언과 주체적인 행동을 통해 꿈에 다가설 것이다.